

마쓰다이라 성터

현재는 숲으로 뒤덮여 있으며 마쓰다이라고로 향하는 길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중세의 작은 요새 터가 있습니다. 이 산성은 마쓰다이라 가문이 마을의 영지를 적에게 빼앗겼을 때, 퇴각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해발 300m, 마을에서 70m 정도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이 요새는 ‘마쓰다이라 성’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덕 위 주변에는 기본적인 방어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400 년대에 언덕을 정비해 요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언덕 정상 부근을 평평하게 해 울타리로 둘러싸고 보초를 배치했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도로가 내려다보이는 망루도 이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요새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마른 해자는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적 간소하지만 최후의 보루로서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곳에는 우물이 있고 아래에 있는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었으며 평소에는 관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투에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쓰다이라 성은 국가지정사적인 마쓰다이라 가문 유적의 일부지만, 자연의 힘에 의해 당시의 모습은 사라져 전문가가 아니면 요새 터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정상까지는 비포장 산길이 있어 몇 분이면 오를 수 있습니다.